

연민 이가원의 「중화대륙기행일백수 (中華大陸紀行一百首)」에 대한 연구

허권수*

【국문초록】

연민(淵民) 이가원(李家源)은 한국의 저명한 한문학자이다. 그의 저서는 이미 1백여 종을 넘는다. 한시 한문 문장에 능하여 이미 중국의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1987년 가을, 한국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하여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북경(北京), 곡부(曲阜), 제남(濟南), 서안(西安) 등지를 방문하고 홍콩을 거쳐 귀국하였다.

이때 「중화대륙기행일백수(中華大陸紀行一百首)」라는 중국 기행시 1백 수를 전통 한시 형식으로 창작하였다. 이 시에서 연민은 그의 중국에 대한 시각, 중국 산천에 대한 감회, 중국 문학자들에 대한 인상, 한국 선배 실학자들의 중국 여행에 대한 상상 등을 담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 성립된 이후로 그는 중국 대륙을 두고 처음으로 한시를 지었다. 그리고 서안을 두고 한시를 지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한국한문학사(韓國漢文學史)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로서 특기할 사항이다.

1949년 이후 중국과의 단절된 학술교류도 연민 이가원 등 한국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중국 방문으로 재개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양국 간의 학술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다.

핵심어: 연민(淵民) 이가원(李家源), 중국 대륙, 유학(儒學), 실학(實學), 한국한문학사(韓國漢文學史)

*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명예교수. su7492@hanmail.net

차례

1. 서론
 2. 詩作의 배경
 3. 中國 大陸 訪問旅程
 4. 시의 형식과 편수
 5. 시의 내용과 특징
 6. 韓國漢文學史上的 의의
 7. 결론
-

1. 서론

이 『中華大陸紀行一百首』는, 淵民 李家源 선생이 1987년 평생 처음으로 中國 대륙을 방문하여 孔子의 고향 曲阜에서 열린 儒學國際學術大會에 참석하고, 北京, 濟南, 曲阜, 西安 등지의 文物과 風俗을 둘러보면서 읊은 시이다.

1992년 中華人民共和國와 정식 국교가 수립된 이후에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국 대륙 왕래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1987년도에 연민이 방문한 것은, 한국학자로서 공식적으로 중국측의 초청을 받아 중국 대륙을 방문한 최초의 일이었다.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특히 중국 관계의 학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1949년 10월 중국 대륙에 中華人民共和國이 들어선 이후로, 大韓民國 사람들은 중국 대륙을 방문할 수 없었다. 1978년 이후 중국이 改革開放을 표방하여 서방 사람들은 자유롭게 출입할 때도 유독 대한민국 사람만은 1987년까지 공식적으로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다. 더구나 중국 대륙을 방문

하여 한시를 지은 사람은 있을 수 없었다.

연민의 이 작품은, 해방 이후 韓國 사람이 최초로 중국 대륙을 대상으로 지은 漢詩이다. 그 분량에 있어서도 가장 많고, 내용에 있어서도 다방면에 걸쳐 있고, 언급한 내용도 가장 풍부하다. 더구나 西安을 두고 지은 한시는 韓國漢文學史上 처음 있는 일이었다. 高麗時代나 朝鮮時代를 통틀어도 長安을 두고 지은 시는 없었다. 三國時代나 통일 이후의 新羅 때 장안을 방문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남아 있는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淵民의 이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연구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다만 許敬震 교수가 “선생이 지은 『中華大陸紀行一百首』는 한시로 지은 현대판 『熱河日記』이다.”¹⁾라고 평한 것이, 최초의 언급이자 유일한 평가이다. 이 시는 현대에 지어진 漢詩지만, 연민의 학문과 문학, 사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연민의 中國觀을 이해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일백 수의 작품이 지어지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소개하고 이 시의 가치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詩作의 배경

1987년까지는 아직 大韓民國 사람들의 中國 방문이 허락되지 않던 시절이라, 상업적 목적 등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암암리에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중국 방문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韓中관계에서 상황의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하여, 1987년 7월 뜻밖에 淵民에게 中國孔子基金會로부터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발표해 달라는 한 달간의 초청장이 왔다. 공자기금회에서 주최하는 儒學國際

1) 許敬震, 『연민선생과 나』, 보고서, 2017, 145-146면.

學術大會에 한국의 학자들을 초청한 것이었다. 淵民을 비롯하여, 전 成均館大學校 총장 丁範鎭 교수, 성균관대학교 儒學大學長 安炳周 교수, 高麗大學校 哲學科 尹絲淳 교수 등 4명에게 초청장을 보내왔다.

이 4명의 학자가 초청장을 받게 된 것은, 그 이전에 이런 유례가 있었다. 1985년 가을 日本 東京에서 개최된 退溪學 국제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만난 중국 대륙학자들과의 교류 때문이었다. 東京 퇴계학 학술대회에 중국 대륙에서 中國社會科學院의 辛冠潔, 步近智, 人民大學의 張立文 교수 등 19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처음으로 한국 학자들과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 만남은 退溪學의 弘揚 뿐만 아니라, 1949년 이후로 단절되었던 韓中間의 학술교류가 재개된 큰 의미가 있었다.

한국 학자와 중국대륙 학자 사이의 최초의 만남에서 淵民의 뛰어난 漢文學 전반에 대한 수준 높은 學識과 능숙한 漢詩文 창작능력이 중국대륙의 학자들을 크게 감탄시켰다. 중국 학자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우월감에 젖은 고정관념은, 漢文學이나 儒學은 자기들 고유의 학문으로서 인근 한자문화권의 국가 학자들이 자기들의 수준에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연민의 학문과 작문능력을 보고서 모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랐다.

淵民은 귀국 후, 1986년 1월부터 대륙의 학자인 廈門大學 高令印 교수와 서신 왕래를 시작하였다. 일본서 만난 이후 귀국한 고교수가 먼저 서신을 보내와 退溪學에 관심을 갖고 깊이 연구하겠다고 자신의 계획을 말했고, 일본 筑波 학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제8회 國際退溪學會 見聞」이란 제목으로 글을 몇 편 써서 중국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한 사실도 알려 왔다. 일본에서 연민은, 자신의 논문 「許筠的思想及其文學」이란 논문을 고교수에게 주었다. 고교수는 그 논문을 읽어 보고 연민이 중국의 문학 철학 등의 방면에 조예가 극도로 깊다는 것을 알고, 계속 학술적 교류를 할 것을 희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朱子行蹟考」라는 논문을 부쳐 보냈다.²⁾

일본에서 개최된 퇴계학 국제학술대회에 우리 동포인 延邊大學 哲學科의 朱紅星 교수도 참석했다가 돌아가 먼저 연민에게 서신을 보내 우리 민족의 문화를 연구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속 학문적 교류를 하자고 하면서 저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연민은 주교수에게 답신을 보내면서, “退溪學研究院 諸公 명의로 鄧小平 주석에게 북경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려고 하니, 朱教授도 적극 노력하시라.”고 당부하였다.³⁾

일본 학술대회에서 돌아온 뒤부터 退溪學研究院에서는 李東俊 이사장 등을 중심으로, 退溪學 국제학술대회를 1986년에는 중국 수도 北京에서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동준 이사장은 재종숙인 연민에게 여러 가지로 자문을 구하고 일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血盟關係인 北韓의 존재 때문에, 중국 당국은 한국 학자들이 대거 北京에 와서 학회를 하는 것을 허락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때 연민은, 중국 최고 실력자 鄧小平 中央軍事委員會 主席에게 퇴계학 국제학술대회를 북경에서 개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장문의 漢文 書信을 썼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담당기관에 제지를 당하여 결국 보내지는 못했다.⁴⁾

1986년 후반기까지 中國 北京에서의 退溪學 국제학술대회의 개최가 어렵게 되자, 부득이 다급하게 장소를 香港 中文大學으로 바꾸어 결정하여 12월 말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 홍콩의 국제퇴계학 학술대회에는 중국 대륙의 학자 40여 명이 대거 참석하여 퇴계학 논문을 발표하고, 한국학자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학술적 친교를 맺게 되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2) 李家源, 「答高教授令印」,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31-132면.

3) 李家源, 「答朱教授紅星」,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36면.

4) 李家源, 「與鄧公小平」,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39-140면.

한국 학자들은 막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어 외국 학술대회 참석이 자유로웠지만, 중국의 학자들은 외국에 한번 나가서 외국학자들과 교류하기는 지극히 어려웠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 가운데서 퇴계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등의 학자들과 교류를 하는 것을 평생일대의 행운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거기다가 경비 일체를 주최측에서 제공해 주고, 수속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

학술대회를 마친 뒤 1977년 2월 淵民은 退溪學研究院 院長 자격으로 李東俊 理事長과 공동명의로 참석자 전원에게 감사를 표하는 淵民 親筆을 영인한 漢文 書信을 보냈다. 물론 중국 대륙의 학자들에게도 다 보냈다.

퇴계학회에 참석하여 한국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하고, 연민의 높고 깊은 학문적 수준을 안 중국 대륙 교수들은 중국에 돌아가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학자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더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들의 주선으로 그해 8월에 유학관계 국제학술대회에 한국 漢文學界를 대표하는 연민과 退溪學會에 관여하는 3명의 학자를 초청했던 것이다. 이때 연민은 退溪學研究院 院長을 맡고 있었다.

3. 中國 大陸 訪問旅程

1987년 양력 8월 25일에 비행기로 金浦空港을 출발하여 그 날 저녁에 홍콩의 海港酒店에 투숙하였다. 27일 오전 비행기로 홍콩을 출발하여 오후 2시 40분에 北京 공항에 도착하였다. 다시 차를 타고 북경 시내로 진입하여 後門酒店에 숙소를 정하고 잠시 머물렀다. 하루 머물면서 北海公園의 白塔 등을 바라보고 시를 지었다.

29일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山東省의 濟南市에 도착하여, 거기서 자

동차로 曲阜市에 이르러 關里賓舍에 투숙하였다. 儒學國際學術大會도 켈리빈사에서 개최되었다. 켈리빈사는 孔府의 남쪽에 있는데, 孔廟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9월 2일 淵民 등 4명의 한국 학자들은 儒學國際學術大會에 참석하였고, 거기서 연민은 「曰若稽古孔子」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의 요지는 ‘民族主義나 社會主義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儒敎의 大同思想으로 세계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程子나 朱子, 韓國의 性理學者들이나 實學者들이 고대의 儒敎經典인 『禮記』에서 표방한 大同思想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간과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라는 것이었다.

이때 연민은 중국 대륙의 많은 학자들을 만났고, 일본, 홍콩, 서양 등지의 학자들과도 만나 교류하였다.

학회 발표를 마치고 孔廟, 孔府, 孔林을 참관하고 한시를 지었다.

그 뒤 曲阜 북쪽 泰安市에 있는 泰山에 올라 태산의 石刻 등을 살펴보고 시를 지었다.

다시 북쪽 濟南市에 가서 黃河大橋를 건너고, 趵突泉, 大明湖, 대명호가에 있는 李清照紀念館을 참관하고 시를 지었다.

다시 曲阜市를 관할하는 상급행정단위인 濟寧市에 가서 李太白紀念館을 참관하고 李太白의 石像을 두고 시를 지었다.

濟南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陝西省 西安市로 가서 西安賓館에 묵었다. 서안에서 大雁塔, 小雁塔, 未央宮 遺址, 半坡遺蹟地, 西安 碑林, 灊橋, 華清池, 秦始皇陵 등을 참관하였다.

서안에서 다시 北京으로 와서 天安門, 紫禁城, 魯迅故居, 琉璃廠, 頤和園, 明十三陵, 萬里長城, 大觀園 등지를 참관하였다. 이때 특별히 李贄의 묘소를 참관하려고 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못했다.

북경에서 다시 홍콩으로 가서 滿景國際賓館에 투숙하였다. 홍콩에서 集

古堂이라는 문물상점에서 廣開土大王 碑文 拓帖을 구입하였다.

9월 18일 홍콩을 출발하여 저녁 때 서울 집에 도착하였다. 음력으로는 7월 26일이었다. 전후 25일에 걸친 긴 여행이었고,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홍콩, 서양 등 많은 학자들과 교류를 맺었다. 또 많은 拓片과 書籍을 구입하였다. 『中華大陸紀行一百首』은 이때 남긴 연민의 중요한 한시 작품이다.

4. 시의 형식과 편수

淵民의 『中華大陸紀行一百首』란 시는 詩題는 모두 55題이다.

가장 많은 형식은 七言絶句인데, 모두 85수이다. 五言古詩 5수, 七言古詩 4수, 七言律詩 1수, 四言詩 1수, 雜言體 3수, 楚辭體 1수이다. 압도적으로 많은 詩體가 칠언절구인데, 이는 中國이나 韓國에서 역대로 가장 많이 지어진 漢詩體이고, 구시대 우리나라 漢詩 작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詩體이고, 연민에게도 가장 익숙한 시체였다. 律詩는 五言, 七言을 통틀어서 딱 한 수 있는데, 율시는 平仄, 對偶 등 고려해야 하는 점이 매우 많아, 풍부한 내용을 담기에 제약이 많고, 여행의 促忙함 속에서는 적절한 시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 연민의 豪放한 성격에는 古雅 莊嚴함이 돋보이는 古詩體가 맞았으므로 자연히 古詩가 많은 것이다.

칠언절구 가운데는, 2수 이상의 連作詩가 많은데, 2수로 된 연작시가 7편, 3수로 된 연작시가 3편, 4수로 된 연작시가 7편, 10수로 된 연작시가 1편이다.

5. 시의 내용과 특징

5.1. 최초의 중국 여행에 대한 감회

연민은 어려서부터 중국의 儒教經典, 史書, 詩文 등을 읽으면서 자랐다. 1966년에는 연민은 중국 기행문의 백미라는 燕巖 朴趾源의 『熱河日記』를 번역하였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기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증해 가는 동안 가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하였다. 많은 한문 고전들을 읽고 번역하면서 늘 壯快하게 中原天下를 유람하고 싶은 큰 뜻을 갖고 있었다.

장쾌하게 천하를 두루 노니나니, 壯遊遍天下
내 어찌 박처럼 묶여만 있어야겠는가? 吾豈匏繫哉⁵⁾

淵民은 23세 때까지 고향 安東 陶山에서 전통적 학습방식에 따라 漢文 古典만 공부했다. 1939년에 이르러 榮州가 고향인 문학가 宋志英의 권유로 北京 유학길에 따라 나섰다가, 유학 자금이 없어 서울에 이르러서 좌절된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中國과 중국 學問에 대한 무한한 동경심을 품어 왔는데, 거의 50년 이후에 중국대륙에 첫발을 내디디는 데 성공하였다.

교수라도 외국 한번 나가지가 극도로 어려울 때, 연민의 외국 여행의 꿈은 여타 교수들보다는 훨씬 일찍 1970년대부터 실현되었다. 주로 退溪學 확산과 國際退溪學會 창설과 退溪學 관계 학술발표대회 참가하여 논문 발표하는 일로 臺灣을 비롯해서 日本, 미국, 유럽, 러시아를 거쳐 1987년 마침내 간절하게 유람하고 싶었던 중국을 유람하게 되었다.

5) 李家源, 「泰山吟次李白韻」,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5면.

중국 대륙 몽매간에 그리워한 60년 동안,	夢寐神州六十年
단지 문자에 의거해서 마음으로 연결해 왔네.	祇憑文字意牽連
그런 중국 대륙에 도착했으니 심정 어떠하겠는가?	神州及到情何若?
바다 바라보듯 한번 감탄함을 참을 수 없네.	不耐望洋一喟然 ⁶⁾

중국 대륙을 한 번 밟고 싶어하면서 60년 동안 오매불망 중국을 그리워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가 사이에 이념이 달라 가 볼 수 없었다. 단지 책을 통해서만, 중국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 오다가 1987년 마침내 소원을 이루었다. 처음 北京에 도착하여 中國의 면모를 봤을 때 연민의 심정은, 마치 黃河의 水神이 끝없는 바다를 본 듯한 느낌이었다. 책을 보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느꼈다.

山東省 泰安에 가서 어려서부터 꿈에도 그리던 泰山에 올라 그 장엄한 광경과 자신의 감회를 융합하여 이렇게 시를 읊었다.

(前略)

옥녀봉 아득하여 자취가 없고,	玉女渺無跡
어렴풋이 신선의 누대를 본다네.	隱約見仙臺
높은 곳에 올라 옷깃 한 번 떨치고,	登高一振衣
길다랗게 읊조리고서 산에서 내려온다네.	長嘯下山來
시원한 바람 상쾌하게 겨드랑이에서 일어나고,	颯颯涼生腋
호방한 기운 팔방을 압도한다네.	豪氣凌八垓
어찌 꼭 흰 손을 끌어와,	奚須引素手
신선들 마시는 流霞의 잔 살며시 기울여야만 하리?	細傾流霞杯
시를 지어 李太白 시의 여운을 따라가지만,	題詩溯遺響
하늘이 낳은 신선 이태백 같은 재주 없어 부끄럽도다.	媿乏天仙才 ⁷⁾

6) 李家源, 『中華大陸雜感十絕』,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1면.

泰山에 道教의 仙女들은 보이지 않고 아련히 신선들이 놀던 仙臺만 보였다. 연민이 태산에 올라 옷깃을 한 번 떨치고, 길게 시를 읊조리면서 내려오니, 자신의 豪氣가 팔방을 압도한다는 것을 느꼈다. 시를 지어 옛날 李白이 태산에 올라 읊은 시의 餘韻을 따랐다. 다만 자신이 이백 같은 천재적인 詩才가 부족하다는 것을 탄식했다.

泰山에는 磨崖石刻과 碑石이 특별히 많아 태산 전체가 하나의 자연적인 石刻博物館이라는 말이 있다. 연민 자신도 書法의 대가이므로, 현장에 서는 실물을 세심히 살폈다. 돌아올 때는 拓本을 많이 사 가지고 왔다.

마침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얼마 전에 雙龍그룹에서 제공하는 연구지원사업에 연민이 선정되어 상당히 큰 연구비를 받은 것이 있어, 이 최초의 중국 방문에서 서적과 拓本을 구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⁸⁾

이렇게 연민이 비석의 拓本에 관심을 두고 많이 구입해 온 이유는, 이렇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書藝에서 範本으로 삼는 法帖이란 것이, 대부분 중국의 拓片을 再刻 三刻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眞蹟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原書者의 기운이 상실된 죽은 글씨였다. 연민은, 이런 종류의 법첩을 範本으로 삼아 글씨를 가르치거나 배우면, 옳은 글씨를 배울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배운 글씨는 글씨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대표적인 글씨가 韓石峯의 글씨다. 그런데 한석봉의 글씨를 최고의 글씨로 알고 배운 사람들의 글씨는 연민의 안목으로 볼 적에는 수준이 형편없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에서 널리 통행하는 法帖 가운데는 이런 것이 많다. 그래서 연민은 중국 原拓을 특별히 珍重하게 여겨 가능하면 힘써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 중국의 拓本하는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뛰어나 古法을 전하여 精巧하다고 인정했다.⁹⁾

7) 李家源, 『泰山吟次李白韻』,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5면.

8) 필자가 淵民에게 직접 들은 사실이다.

濟南에서 黃河 위를 가로지르는 大橋에 올라 굽어보면서 시를 지었고, 비행기를 타고 황하를 내려다보면서 시를 지었다.

황하는 흐린데 하늘 위에서 온 것이 아님 알겠나니, 黃濁知非天上來
‘천 년에 한 번 맑아진다’는 말도 의심스럽도다! 一清之語可疑哉¹⁰⁾

연민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황하를 굽어보고서,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해 오던 黃河의 물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한 것과, ‘천년 만에 황하가 한 번씩 맑아진다’는 중국의 전설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 사실을 시로 읊었다. 연민은 고전을 공부하는 학자지만, 實學을 연구하는 학자답게 매우 합리적이고 실질적이 사고를 하였다. 황하는 『시경(詩經)』에서부터 중국 문학에 많이 등장하는 강이다. 지상에서 한 번 걸어 건너본 뒤에 濟南에서 西安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황하는 누런 용이 굽이치는 것처럼 기이하다는 표현을 했다.

北京 북쪽 1백여 리 거리에 있는 八達嶺 萬里長城에 올라서 七言絶句 2수, 七言古詩 1수를 지었다.

아아! 위대하고 웅장하도다!	噫噫戲偉哉壯哉
이것이 만리장성이구나.	此是萬里長城也
일만칠천 리 쪽 뻗어 있는데,	延驚一萬七千里 ¹¹⁾

9) 李家源, 『曲阜雜事四絶』,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6면.

10) 李家源, 『濟南上黃河大橋二絶』,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6면.

11) 一萬七千里 : 원문에 ‘六萬七千里’로 되어 있으나, ‘六’자가 ‘一’자의 오자 같아 고쳐서 번역했다. 실제 萬里長城의 길이는 6300킬로미터 정도로 보니, 6만 7천 리가 아니고, 1만 5천여 리 된다고 한다. 이것도 중국 영토의 동서 폭보다 긴데, 그 이유는 성이 지형을 따라 쌓아 가다 보니 대부분 곡선이고, 또 요새에는 성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그런 것이다.

옛날부터 웅장한 이름으로 천하를 진동해 왔네. 自古雄名轟天下
 높았다 낮았다 솟았다 엎드렸다하는 팔달령은, 高低起伏八達嶺
 좁은 곳은 목구멍 같고, 늘어진 곳은 목 같도다. 隘爲咽喉延爲頸
 뻗어갈 때는 날아오르듯 하다 다시 꾸불꾸불하여, 行時飛騰復紆餘
 한 마리 푸른 용이 구름길 바다로 달려가는 듯. 一條靑龍雲海騁
 옛날 春秋戰國時代부터, 粵自春秋戰國代
 燕나라 趙나라가 오랑캐 막느라고 북쪽 국경 튼튼히 하였지.

燕趙防胡固北塞

秦始皇 嬴政이 웅대한 전략으로 여섯 왕국을 통일하고서,
 秦始皇嬴政이 웅대한 전략으로 여섯 왕국을 통일하고서,
 秦나라를 망칠 자는 오랑캐라 용서할 수 없었지. 亡秦者胡不可貸
 군졸들 매질하고 신의 도움으로 큰 공사 일으켰나니, 笞卒鞭石起大役
 신령스런 女媧氏 하늘 기운 일도 오히려 작은 일이라 하겠네.

神媧補天猶云窄

큰 재앙이 집안에서 일어날 줄 어찌 알았겠는가? 安知大禍起蕭牆
 만 대를 가려던 웅혼한 도모가 하루 저녁에 무너졌네.

萬世雄圖壞一夕

(중략)

나 또한 올라와 마음껏 읊조리나니, 我亦登臨恣一吟
 하늘에 닿을 빼어난 기개 고금을 가로지르네. 沖霄逸氣橫古今
 종일 왔다갔다하면서 돌아오는 것 싹 잊어버렸나니, 夷猶竟日渾忘返
 우수수 가을 소리가 높은 산봉우리 흔드누나. 秋聲瑟瑟動高岑¹²⁾

연민은, 이 시의 첫머리를 마치 李白의 「蜀道難」처럼 감탄사로 시작하여, 거대하고 웅장한 만리장성의 위용을 감탄적으로 읊었다. 만리장성의 布局과 역사를 전반적으로 묘사하고, 한 나라가 만세토록 유지하는 것은,

12) 李家源, 「長城行」,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91면.

萬里長城을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를 화합되게 다스리는 데 있다는 諷刺와 敎訓을 붙였다. 만리장성의 雄大한 모습에 매료되어 연민은 발길을 돌리기가 어려웠다.

만리장성은, 淵民이 豪氣를 펼쳐 시를 지을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내 올라 한번 마음껏 읊조리니, 하늘에 닿는 빼어난 기운이 고금에 가로지르네. 종일 왔다갔다하면서 돌아오는 것씩 잊었노라.”라고 읊었다. 燕巖이 遼陽의 白塔을 보고, ‘好哭場’이라고 했다면, 연민은 만리장성이 ‘자신의 逸氣가 古수를 가로지르는 곳’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만리장성 굽이굽이 기이하여,	萬里長城曲曲奇
시원하게 내 배 속의 시를 써 내노라.	泐泐寫我腹中詩
太湖의 물로 벼루에 붓고 廬山 봉우리를 붓으로 삼아,	太湖爲硯匡廬筆
성이 끝나는 때 있으면 내 시도 그치리라.	城有盡時乃已之 ¹³⁾

만리장성은 굽이굽이마다 그 광경이 기이한데, 연민이 시 짓기에 가장 좋은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연민은, 중국에서 세 번째로 넓은 太湖을 물을 벼루에 끌어들여 먹을 갈고, 廬山 봉우리를 붓으로 삼아 시를 짓는다면, 만리장성이 끝날 때라야 비로소 자신의 시 짓는 일도 그치겠다는 豪放한 기운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는 李太白의 창작능력을 자부한 ‘廬山 五老峯을 붓으로 삼고, 洋瀾湖를 벼루 물로 삼는다네.[五老峯爲筆, 洋瀾作硯池.]’¹⁴⁾라는 호방한 구절을 연상하게 한다. 연민 시 가운데서 호방한 기상은 이태백과 흡사한 곳이 많다.

13) 같은 글.

14) 이 시구는 『李太白全集』에는 실려 있지 않고, 중국의 啓蒙書인 『聲律啓蒙』이란 시에 李白의 시로 인용되어 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毛澤東과 四人幫에 의해서 획책되어 중국을 10년 동안 대혼란으로 몰아넣었던 文化大革命으로 인하여 중국의 백성들이 당한 처참한 피해를 연민은 이렇게 읊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대 아는가?	今世何世君知麼
큰 난리 겪어 모든 일이 엉망 되었다네.	曾經大亂萬事跔
국토는 병들고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려,	國土瘡痍人民苦
쓴 썸바귀와 거친 좁쌀 밥에 눈물 줄줄 흐르네.	苦茶荒秫淚滂沱 ¹⁵⁾

이 시 앞에 『莫答驢』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대하여 농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된 시다. 문화대혁명으로 난리를 겪어 국토는 병들고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리며 썸바귀나 거친 조밥 등을 먹으며 눈물을 줄줄 흘리는 생활을 했으므로, 나귀를 채찍으로 몰아 농사일을 해야지 한가하게 풍류나 즐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毛澤東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책동했던 문화대혁명 때문에 국가경제를 망치고 문화를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한 중국의 정치상황을 연민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백성을 동정하여 읊은 시다.

당시 우리나라의 좌파지식인의 대부 노릇을 하던 李某 교수는 문화대혁명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국내에서 문화대혁명을 찬양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중국의 실상을 정확하게 안 연민의 작품과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안목이다.

5.2. 先輩 實學者들에 대한 追想

朝鮮王朝는 건립 초기부터 事大外交를 표방하며 明王朝에 대해서 天

15) 李家源, 『代田父答』,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2면.

下 文明의 宗主國으로 신봉하며 무한히 欽服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가 조선왕조에서 오랫동안 야만인으로 취급해 왔던 女眞族들이 근간이 된 滿洲族들이 1644년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淸王朝을 세워 중국 천하를 석권하였다. 그러자 조선의 유학자들은 인식의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마침내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내어 중국의 문명은 완전히 망하였고, 조선이 중국을 대신해서 중국의 문명을 승계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小中華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을 완전히 禽獸라고 인식하였다. 청나라의 위세 앞에 君臣의 맹약을 맺고 항복했다. 그러니 드러내놓고는 거부하지 못하여 조선 조정에서 淸나라 황제의 年號를 사용하고 사신의 왕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청나라에 사신 가는 것을 마치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하여 朝鮮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崇禎이란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年號를 조선 말기까지도 계속 썼다.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국제관계를 깨달은 사람들이 조선후기 實學者들이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의 청나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준 사람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北京으로 수도를 정한 지 87년이 지난 뒤 태어난 湛軒 洪大容이다. 그가 1766년에 北京을 다녀와서 쓴 『湛軒燕記』가 후세 실학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금수 수준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갔던 만주족의 청나라에 직접 가서 보니, 학문은 다양하고 생활수준은 높았고, 많은 학자는 여전히 명나라와 다름없는 중국의 학자였고, 학문은 여전히 중국의 학문이었다는 사실을 조선에 소개하였다.

홍대용의 『담헌연기』는, 그의 후배인 燕巖 朴趾源과 그 제자 그룹인 楚亭 朴齊家, 雅亭 李德懋, 冷齋 柳得恭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이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게 만들었고, 중국여행을 촉발하였다.

일본강점기 때 山康 卞榮晩과 더불어 朝鮮의 漢文學界를 대표하는 유명한 詹園 鄭寅普 등의 뒤를 이어 淵民은 일찍부터 實學에 관심을 두고 실학자들의 著作을 읽고 抄錄해 왔다. 그 결과 燕巖을 연구하여 文學博士 학위를 받고, 『熱河日記』를 최초로 완역해 냈다. 그래서 연민은, 연암을 비롯한 實學者群들의 북경 여행과 북경에서의 행적을 소상히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실학자들의 행적이 강렬하게 연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선배학자 구름처럼 많았나니,	吾邦先輩藹如雲
중국 좋아하는 고질병자와 燕京에 미친 사람을 크게 좋아했지.	唐癖燕顛大喜欣
고증학과 시문학을 모두 실학이라고 일컬으나,	考據詞章稱實學
漁洋의 시와 진천의 문장도 다 실학이라네.	漁洋詩律震川文 ¹⁶⁾

실학자 가운데서 朴齊家처럼 中國을 너무 좋아하는 학자를 두고 唐癖, 唐學, 唐漢, 唐魁 등의 貶稱을 고루한 당시 朝鮮의 지식인들이 부가했다.¹⁷⁾ 燕顛은 用例가 있는 단어는 아니고, 연민이 창작한 말인데, ‘燕京에 미친 사람’이란 뜻으로 ‘북경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을 뜻한다. 예를 들면 박제가 같은 실학자는, 스승 燕巖보다 먼저 북경을 다녀왔고, 연암이 한 차례 방문에 그친 데 비하여 그는 4차에 걸쳐 북경을 다녀왔다. 연암이 그의 중국 기행록인 『熱河日記』에서 산만하게 중국 문물을 소개한데 비하여, 박제는 중국의 학문과 문물을 소개하는 『北學議』라는 專著를 저술할 정도였다. 그러니 박제가가 淸나라의 학문과 문물에 얼마나 경도되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실학자들은, 淸나라 학자들이 주로 하는 考據를 위주로 하는 실학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시문에도 능했다. 唐宋八大家만 찾던 擬古派

16) 李家源, 「中華大陸雜感十絶」,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1면.

17) 李德懋, 「與朴在齊齊家書」, 『雅亭遺稿』 권7, 韓國文集叢刊本.

문장가들과는 달리, 개인의性情과 특징을 살린 명나라 古文家 震川 歸有光의 문장이나, 청나라 초기 漁洋 王士禛의 시도 다 알고 배웠다. 이것은 실학자들의 학문 경향과 학문 수준을 정확하게 아는 연민만이 내릴 수 있는 평가다.

실학자들이 다니던 旅情을 직접 밝은 연민은, 실학자들의 북경에서의 행적을 상상하면서 시를 지었으므로 시가 더욱 현장감이 있고 생동감이 풍부하다.

燕巖은 그릇이 커 무리에서 우뚝이 뛰어나, 「虎叱」과 「許生傳」 같은 감개로운 글 지었지. 德保가 침착하고 깊이 있는 건 정말 그 부류 없었나니, 실학 공부하는 노인의 이야기 맑은 향기 일으키네.	燕巖傲儻卓超群 虎叱許生感慨文 德保沈深眞無類 實翁談屑揚清芬 ¹⁸⁾
--	---

그리고 대표적인 실학자 燕巖 朴趾源의 倜儻不羈한 사상과 연암이 지은 조선 양반들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글인 「虎叱」, 「許生傳」까지 연민은 연상하여 감개로운 글이라고 평하였다. 또 湛軒 洪大容은 침중하고 깊이가 있어 정말 同類가 드문 존재로 추앙하고, 자신이 동행한 학자들에게 실학을 깔끔하게 이야기한 사실을 읊었다.

실학 이야기하기 좋아한 나의 한평생, 漢學과 宋學을 아울러 연구해야 실정에 맞으리. 지금이 옛날보다 못 하단 말 믿을 수 없나니,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여 함부로 놀라지 마소서.	憲譚實學我生平 漢宋兼治乃稱情 今不古如無足信 後余來者莫漫驚 ¹⁹⁾
--	---

18) 李家源, 『中華大陸雜感十絶』,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1면.

19) 李家源, 『中華大陸雜感十絶』,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1면.

연민은, 우리나라 실학자들의 학문은 사실 漢學과 宋學을 兼治하였고, 그렇게 해야 학문이 實情에 맞다고 보았다. 연민 자신의 학문 연구하는 노선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또 자신을 포함한 지금 세상의 학자들의 학문이 옛사람에 못하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학문에 대한 자신의 무한한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신이 實學을 논하기를 좋아한다고 밝혀 漢文學 가운데서도 특히 實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밝혔다.

燕巖이 遼東 지방을 지나면서 요동 들판의 白塔을 보고 한 바탕 울 만한 ‘好哭場’이라고 명명한 적이 있었다.²⁰⁾ 연민은 北京 紫禁城 서북쪽의 北海公園의 白塔을 바라보고서 연암의 요동 ‘好哭場’과 연상시켜 이렇게 시를 지었다.

燕巖先生 나보다 앞서 기이한 발상했나니,	燕翁先我敲奇想
크게 부르짖을 인간세상의 울기 좋은 곳이라 했네.	絕叫人間好哭場
미친 듯 한바탕 웃음에 들 귀신들 놀랐을 것이니,	狂笑一聲驚野魅
원래 기쁨이나 슬픔은 서로 어울리는 것이라네.	元來哀樂兩相當 ²¹⁾

遼東의 白塔은, 정확하게 말하면, 遼陽에 소재한 廣祐寺에 속한 탑으로 白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회색 탑이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 태양 빛에 반사되어 흰빛으로 보였을 것이다. 12세기 金나라 때 만들어진 13층 탑으로 높이 약 70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불탑이다. 2층 건물도 보기 힘들었던 시절에 연암이 이 탑을 보고서, 기발하게도 그 지역을 ‘好哭場’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바라보면 높은 탑이 가슴 시원하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시원하게 울어보고 싶다는 감정과 공통점이 있어 이런 이름을 붙였다.

20) 朴趾源, 『燕巖集』 권11, 『熱河日記』 『渡江錄』. 韓國文集叢刊本.

21) 李家源, 『望白塔』,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1면.

北京 紫禁城 서북쪽에 있는 北海公園의 백탑은, 淸나라가 北京에 도읍을 옮긴 順治 皇帝 때 만든 白塔으로 높이는 35미터 정도인데, 정말 순전한 백색의 白塔이다. 높이는 요동 백탑의 반 밖에 안 된다. 백탑은 본래 라마 불교사원의 佛塔인데, 우리나라 불탑과는 달리 독특한 건축양식이고, 본래 흰 빛이 정통이다.

이 때 연민은 遼東을 가 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때만 해도 자신은 가 볼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요동 백탑을 상상하면서 연암이 느꼈던 감정을 북해공원의 백탑에서 느꼈던 것이다. 결국 연민은 요동 백탑은 참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연암은, 울음이란 꼭 슬픈 감정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七情이 모두 극도에 이르면 울음이 나온다고 보았는데, 연민은, 연암의 이런 발상을, “원래 슬픔이나 즐거움은 둘이 아니고 서로 어울린다[元來哀樂兩相當]”라는 시구로 포괄하였다.

5.3. 社會主義 體制에 대한 긍정적 인식

毛澤東이 건립한 中華人民共和國의 社會主義 體制를 연민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다. 『禮記』에서 말한 大同思想의 現代的 실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大同의 主義는 균형 잃은 것 아니니,	大同之義不偏枯
만고의 참된 이치 내 어찌 거짓말 하리오?	萬古眞眞豈我誣
마음과 사물이 아울러 행하고, 덕과 이익 겸하니,	心物併行兼德利
큰 기회 펼쳐면 곧 평화 이르리라.	平和乃至展鴻圖 ²²⁾

22) 李家源, 『中華大陸雜感十絕』,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1면.

大同思想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비가 되지 않아 中國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연민은 보았다. 개인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분배하는 理想社會로 孟子가 주장한 井田法과도 일면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 본래 唯物主義만 신봉하던 중국 공산당이 1978년 이후 鄧小平의 改革開放政策에 따라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唯心主義的인 색채도 가미하여 人性과 利潤을 동시에 추구하여 평화를 이루고 큰 계획을 전개해 나간다고 보았다.

그리고 大同思想의 진리를 淵民은 확고히 믿었는데, 중국의 개혁개방에 의한 발전상을 보고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더욱 확실히 맞다고 본 것이었다. 연민이, 曲阜 儒學 國際學術大會에서 발표한 주제도 大同思想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에 의한 발전은, 대동사상의 발전이라 보기보다는, 鄧小平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사회주의 경제에 도입한 것으로, 연민이 중국의 발전을 대동사상과 연관시키는 것은 중국의 실제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연민의 이런 대동사상 형성에는 明倫專門學院 시절 은사인 聖岩 金台俊의 사상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은사 가운데서 연민이 가장 존경하여 따랐던 사람이 김태준이었다. 그는 일제 말기 毛澤東이 주도하는 中國 共產黨의 근거지인 중국 延安까지 다녀왔고,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있으면서, 南勞黨의 文化部長을 겸직하고서 활동하였다. 得意弟子 연민을 공산주의 운동에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²³⁾ 비록 연민이 거절하기는 했지만, 연민의 사상에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연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大同思想은 현실사회에서 실현되기

23) 許捲洙, 『淵民李家源評傳』, 도서출판 숲이, 2016, 53면.

어려웠다. 모든 사람들이 물욕을 버리고 공동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中華人民共和國에서도 共產黨 간부들이 입으로는 평등을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모택동의 지시로 공동농장제도를 시행하던 1958년부터 중국의 인민들은 최저생활도 유지하지 못 해 굶어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에 이르렀다. 연민이 대동사상에 바탕하여 중국의 사회주의제도를 지나칠 정도로 좋은 시각에서 본 것은 현대 중국의 정치현실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

5.4. 四海同胞 사상

淵民은, 孔子의 영향으로 천하의 모든 사람은 형제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민족간의 구분도 국경 구분도 크게 할 것이 없고, 다만 온 세상에 평화가 오기만을 기대했다.

천하의 사람들은 모두 동포이니,	四海之人兮皆同胞
비록 다른 민족이라도 해로울 것 없네?	異族兮曷無傷
온 지구에 평화가 오는 것,	翳環球兮平和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바라네.	凡夫夫兮所望
한국과 중국은 입술과 이빨 같은 관계니,	矧韓華兮脣齒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두 망하리.	不我與兮胥淪亡 ²⁴⁾

첫째 구절은, 『論語』 「顏淵篇」에 나오는 “천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다.[四海之內, 皆兄弟也.]”라는 구절에서 바탕한 사상으로, 민족 사이의 구별이나 국가 사이의 경계를 따질 것 없이, 이민족이라도 서로 동정하여, 전지구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것이 천하 사람들의 뜻이라는

24) 李家源, 『曠野歎』,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2면.

것이다. 더구나 한국과 중국은 서로 脣齒의 관계니,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여 협력하지 않을 때 다 같이 망한다는 생각을 연민은 가졌다.

이것은 孔子 이래 역대 유학자들의 이상이지만, 통치자들의 지배욕구 때문에, 한번도 실현되지 못 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서도 역대로 침략전쟁이 적지 않았고, 1949년 이후로는 서로 적대시하여, 1950년 한국전쟁 때는 중공에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북한을 도와 한국과 3년 동안 전쟁을 했다. 그래서 연민은 韓中間의 우호관계를 특별히 중시하였다. 유교 경전에 바탕한 연민의 이러한 理想은 현실적으로는 국익이 걸린 문제라 실현되기 어려웠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국력의 차이 때문에 중국의 태도가 우리나라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어 왔다. 1987년경부터 약 10년 동안은 우리나라와 경제격차가 심하여 중국은 우리를 선망의 눈으로 보았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이 거의 우리의 경제수준에 추격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니, 脣亡齒寒의 관계도 쌍방이 힘이 비슷할 때 가능한 것이다. 연민의 이러한 생각은 중국이 야심을 드러내지 않는 1987년경에 한 것이지만, 오늘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연민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

5.5. 儒學의 本源에 대한 溯求

우리나라의 鄒魯之鄉이라는 安東 陶山에 세거한 退溪의 후손인 淵民이, 儒敎의 本源인 山東省 曲阜에서 孔廟, 孔府, 孔林을 참관한 감회는 남달랐다. 현대사회에 유교를 복원해야 하겠다는 결의가 저절로 일어났다.

나는 옛날 禮安 고을에 살았는데, 我居古宣城
세상에서 동쪽 나라 鄒魯라고 일컬었지. 世稱東魯鄉

내가 지금 이곳을 방문하였으니,	我今訪此地
천고의 감회가 길도다.	千古感懷長
소년 때 그 책을 읽고서,	童年讀其書
聖哲들 말씀이 마음 속에 스며들어 있지.	哲言沁肺腸
少昊氏는 아득하여 믿기 어렵지만,	少昊渺難藉
孔林은 울창하여 바라본다네.	孔林鬱相望
마루에 오르는 데 미치지 못해 탄식하며,	升堂嗟未及
왔다갔다하며 다만 혼자 슬퍼한다네.	回皇祇自傷
봉황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건만,	鳳去不復返
사람들은 그래도 태양처럼 우러르네.	人猶仰太陽
孔學齋로 돌아가서,	歸去孔學齋
남은 세월 동안 잘 스스로 힘써야지.	餘景好自強
때를 안 성인 孔子를 배우고자 하나니,	願學時聖者
거기서 멈추면 되고 또 좋아지리라.	可止亦可藏 ²⁵⁾

儒敎의 본향 禮安[安東에 통합됨]에서 성장하여 평생 儒敎經典을 열심히 읽은 淵民이 평생 그리워하던 曲阜에 갔으니, 千古의 감회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책에서 읽었던 聖人 孔子의 말씀이 이미 肺腑에 들어와 박혀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曲阜을 방문했다. 전설적인 少昊 등 三皇五帝는 연대가 까마득하여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기에, 연민은 인정하기 어려웠다. 孔子는 여러 聖人 가운데서도 孟子가 말한 ‘성인 가운데서 때를 안 성인 [聖之時者]’이다. 가장 현실적인 성인이란 말이다. 연민 자신은 평생 漢文學을 공부했지만, 공자의 학문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스스로 진단하고서 스스로 슬퍼했다. 한국에서 책만 보고서 공자를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연민은 曲阜 참관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다.

25) 李家源, 『曲阜次高適魯郡途中遇徐十八錄事韻』,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3면.

孔子가 떠난 뒤에도 후세의 사람들은 공자를 태양처럼 존경하여 우러러 보고 있다. 이에 연민은 孔學齋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 남은 시간 공자를 열심히 배우겠다고 다짐했다. 연민은 유학의 발상지인 공자의 고향 현장을 직접 보고서 돌아왔으므로 크게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스스로 기대했다.

德은 천지와 가지런하여 앞 시대 성인들을 뛰어넘었고, 德侔天地超前聖
 道는 고금에 으뜸이라 후인들을 열어주었도다. 道冠古今啓後人
 보잘것없는 내 한 마디가 어찌 찬양이 되겠는가? 眇末一辭烏敢贊
 바다와 산 텅 비었는데 푸른 하늘만 우러러본다네. 海山寥廓仰蒼旻²⁶⁾

孔子의 가장 큰 업적은 앞 시대 聖人들의 유학을 集大成해서 後學들을 열어주어 儒家가 후세에 계속해서 존재하게 만든 것이다. 그는 고금의 모든 성인 가운데서 道德이 가장 뛰어났다. ‘德侔天地’와 ‘道冠古今’은 曲阜의 孔廟에 걸려 있는 孔子에 대한 讚頌句이다. 연민은 자신이 창작한 구절로 공자를 찬송하기보다는, 자신의 시에 이 두 구절을 적절히 인용해 넣어 공자에 대한 찬송의 객관성을 더 높였다. 공자의 도덕은 바다처럼 넓고 산처럼 높으니, 연민 자신은 단지 푸른 하늘처럼 欽仰할 따름이라고 했다. 바다와 산이 텅 비었다는 것은 현실세계에서 공자의 유교는 지지세력이 없지만, 공자의 도덕은 여전히 높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공자의 儒學史에 끼친 학문적 업적을 두고 이렇게 시를 지었다.

여러 경전을 刪正하여 기술하여 긴 후대에 드리웠고, 刪述諸經垂億載

26) 李家源, 「孔廟四絶」,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3면.

육예에 두루 통하여 다방면으로 열어 주었네.	兼通六藝啓多方
덕이 천지와 가지런하여 제왕처럼 높는데,	德侔天地巍如帝
우러러보니 顔子와 曾子가 분명히 옆에 있도다.	瞻忽顏曾宛在傍
元나라 사람들이 이 학문에 성기다고 이르지 마시길,	莫謂元人疎此學
文宣을 높여서 왕이라고 했으니.	文宣尊以大君王 ²⁷⁾

孔子的 學問的 業績은, 儒教經典을 정리 확정하여 천추에 전하게 해 준 것이고, 六藝에 두루 통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後學들을 열어 준 것이다. 덕은 천지와 같이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그 영향력은 제왕처럼 높다. 蒙古族이 세운 元나라에 대해서 中國이나 朝鮮時代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儒學이 침체한 암흑기로 간주해 왔지만, 연민은 원나라의 유학이 침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써 孔子를 大成至聖文宣王으로 追封한 사실을 들었다. 이는 연민의 합리적이고 독창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사실 원나라에서 孔子를 文宣王으로 追封한 것은 아니고, 文宣王이라는 봉호는 唐나라 때부터 봉해진 것인데, 원나라 때는 최고의 봉호인 大成至聖文宣王의 봉호를 올렸다. 연민의 시구는 독자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朱子의 학문을 인정하여 朱子學을 官學으로 지정하고, 『四書集注』를 과거시험의 핵심 필수과목으로 제정한 것도 원나라 때의 일이었다. 사실 朱子의 학문은 南宋에서는 한동안 僞學이라고 탄압을 받았고, 朱子學이 본격적으로 흥륭한 시기는 원나라 때부터였다.

5.6. 中國 文學家에 대한 평가

淵民은 漢文學者 가운데서 가장 中國文學에 해박하다고 할 수 있다.

27) 李家源, 『次郭沫若游孔廟韻』,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4면.

이는 개인적인 취향도 있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연민은 여타의 한문학자들처럼 시골 서당에서 전통적 학습방식으로 漢文을 공부했지만, 23세 이후 明倫專門學校에서 3년간 수학하였는데, 그 教科課程에 中國文學에 관한 과목이 들어 있어 수학할 기회가 있었고, 또 1954년부터 1956년까지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조교수, 학과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그때 『中國文學思潮史』라는 中國文學史를 써서 강의를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문학사 저술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漢文學의 大家라고 추앙받는 漢學者들이, 주로 읽었던 중국 고전은, 四書三經, 『小學』, 『近思錄』, 『通鑑節要』, 『古文眞寶』, 『唐宋八家文』, 그 외 개인 문집 정도에서 머물었으므로 독서의 폭이 그다지 넓지 못했다. 중국의 학문이나 문학에 대한 것은, 시대적으로 宋나라 정도에서 그치고, 그 이후 元, 明, 淸의 학자나 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다. 특히 淸代 小說이나, 宋詞, 元曲, 중국 근현대문학 같은 것은 거의 읽어 본 적이 없어 초보적인 수준도 안 되었다. 漢文學界의 大家라 해도, 淸代 大學者의 저술이라도 책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연민은 淸代의 詩文은 물론 小說, 俗文學 등에까지 관심이 많았고, 魯迅 등 현대문학에도 관심이 적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淵民이 孔子의 고향 曲阜에 갔을 때, 곡부 출신의 수많은 유학적인 인물보다도 淸나라 때 傳奇作家로 유명한 孔尙任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

孔尙任은 孔子의 64대손으로 曲阜에 살았는데, 康熙皇帝가 곡부에 왔을 때 공자 종손 孔毓沂의 명으로 황제 앞에서 『大學』를 강의하고, 강희황제의 孔廟, 孔府, 孔林의 參謁을 안내하였다. 그 때 황제에게 충중한 실력을 인정받아 발탁되어 바로 國子監 博士의 관직에 임명되어 취임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하게 된 것은 孔子 후손으로서 유학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淸나라 삼대

傳奇作品에 드는 「桃花扇」의 작자이기 때문이었다. 「도화선」을 지은 일 때문에 나중에 강희황제의 미움을 사서 좌천되었다가 파면되었다.

중국의 俗文學에도 관심을 가졌던 연민은, 곡부를 방문했을 때 공상임을 연상하고 이런 시를 지었다.

창 앞에 흰 눈이 나부끼는 것 알지 못하고,	不省窓前白雪飄
도화 그린 부채를 쉬지 않고 흔드누나.	桃花扇子不停搖
어리석은 듯 취한 듯 그윽한 생각에 잠겼나니,	如癡如醉沈冥想
侯方域과 李香君의 애정을 아리따게 묘사했네.	侯李艷情寫得嬌 ²⁸⁾

연민이 孔尙任을 추억하여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이 孔子와 관계된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桃花扇」에 관한 내용뿐이었다. 연민의 道學君子로서의 면모보다 문학가로서의 면모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도화선」 속에서 명나라 말기 侯方域과 李香君 사이의 애절한 사랑을 그렸는데, 연민은 그 내용까지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濟南에서는 大明湖 옆에 있는 李清照紀念堂에 들러 여류 문학가 李清照의 생애와 문학을 追念하였다.

꽃 빛과 달 그림자 서로 알맞게 비추는데,	華光月影宜相照
옥 같은 뼈 얼음 같은 살갗 마르지 않으리.	玉骨氷肌未肯枯
절묘한 여인의 방에서 아름다운 시구 지어내니,	絕妙閨房生麗句
푸른 잎 짙어지고 붉은 꽃 여윈데 글자는 환한 구슬 같네.	綠肥紅瘦字明珠 ²⁹⁾

28) 李家源, 「憶孔尙任」,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4면.

29) 李家源, 「李清照紀念堂」,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6면.

李清照는 宋나라를 대표하는 여류시인으로, 생애의 전반부는 그 부군 趙明誠과 함께 知己夫婦로서 讀書作詞하는 유복한 생애를 보냈다. 그러나 생애의 후반은 金나라의 침입으로 남쪽으로 피난 가서 남편도 잃고 방황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그의 詞를 두고 연민은, ‘絕妙麗句’라고 극찬을 하였다.

濟寧에서는 李白紀念館에 들러 이백의 문학을 찬미하는 시를 두 수 지었다.

하늘나라 신선이었다 귀양 내려온 李靑蓮이,	天仙謫降李靑蓮
술에 취하여 읊조리면서 우리러 하늘 둘러보네.	被酒哦哦仰顧天
세상을 뒤덮을 영걸스런 기풍 그래도 상상할 수 있나니,	蓋世英風猶可想
이곳에서 고상하게 산 지 이십 년이었다네.	高居此地兩十年

“이백의 시 대적할 이 없네.”라고 杜甫가 말했나니, 甫云白也詩無敵
 빼어나고 맑고 새로운 점은 최고라고 추앙했네. 雋逸清新已推雄
 시단에서 천년토록 쌍벽으로 존재했는데, 千載詩壇雙壁在
 아아! 나는 거리낌 없이 영걸스런 그 기풍 흠모하노라.

唉余落落溯英風³⁰⁾

세상을 뒤덮을 英傑스러운 李白의 氣風을 淵民은 매우 欽羨하고 있다. 연민은 李白의 豪放한 기풍을 느끼고 자기도 닮고 싶었다. 杜甫의 시구를 빌려와 ‘이백의 시에는 대적할 이가 없고’, 俊逸, 清新한 웅장한 詩風을 이미 추앙받고 있고, 두보와 더불어 詩壇의 영원한 雙璧의 존재임을 인정하였다.

30) 李家源, 「濟寧李太白紀念館石像二絕」,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7면.

근세 중국의 文豪이자 사상가인 魯迅에 대해서 淵民은, 관심이 많았고, 일찍이 노신의 소설 『阿Q正傳』을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한 적이 있었다. 노신의 故居는 여러 곳에 있는데, 北京 西城區에 있는 魯迅故居를 특별히 방문하여 絶句 4수를 지었다. 그 가운데 2수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노선생 일하던 방이 있나니,	此有魯翁工作室
규모가 좁고 좁아 겨우 무릎 들일 정도.	規模窄窄財容膝
용광로 뜨거운 불이 새 모양 만들어내니,	鎔鑪熱火鑄新型
말이 모두 세상을 놀라게 하고 정감은 으스스하네.	語皆驚世情瑟瑟
내 일찍이 우리말로 『阿Q正傳』 번역했는데,	我曾韓譯阿Q傳
읽어보면 때때로 느낌이 많다네.	有時讀之得感多
영성한 阿氏 집 아들은 뭐 하는 자인가?	何物龍鍾阿氏子
불쌍하고 우스운데 어쩔 수가 없네.	可憐可笑莫奈何 ³¹⁾

노신은 중국을 대표하는 문학가로, 1930년대에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 선정되었지만, 서양인들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본인이 평가받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된다”고 사양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비합리적 비과학적 守舊思想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蔣介石 정부를 심하게 매도하였다. 장개석도 노신이 자기와 고향이 가까운 곳인 紹興 출신이면서 자신에게 가장 비협조적인 노신을 아주 싫어하였다. 반면 毛澤東은 노신을 聖人처럼 숭배하였다. 노신과 모택동은 12살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文化大革命 때 모택동 자신의 저작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독서하도록 허락해 준 도서가 魯迅의 著作物이었다. 그 내용이 독재에 항거하고 人民을 위한다는 점에서 모택동의 인정을 받았다. 이 점이 연민에게도 크게 인정을 받았다.

31) 李家源, 『魯迅故居四絶』,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90면.

연민은 일찍이 자유당 독재에 당당히 맞서, 成均館大學校 教授에서 파면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 三一文化賞을 심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수상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삼일문화상은 거액의 상금이 있었다. 그 기질이 노신과 상당히 유사했다. 그래서 특별히 노신에 관심이 많아 그의故居를 찾았던 것이다. 북경의 魯迅故居는, 노신이 北京女子師範大學 教授, 北京大學 講師 등직에 있으면서 1924년부터 26년까지 2년 정도 산 곳인데, 아주 협소하고, 관광지로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다.

연민은, 노신의 문학을 평하여, “용광로 뜨거운 불이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내니, 말은 모두 세상을 놀라게 하고, 정감은 으스스하네.”라 하여, 아주 독창적이고 다양한 표현으로 신랄하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노신의 문학을 아주 높게 평가하였다.

연민은, 중국 대륙의 방문이 허락되기 전에 臺灣에 갔을 때, 노신의 제자 臺靜農을 방문하여 노신의 사정을 물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대정농은 이미 고령이라 대화가 어려워 별 수확이 없었다. 이런 데서 연민의 노신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연민은, 淸나라 章回小說의 백미인 『紅樓夢』에 관심이 많았고, 延世大學校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樂善齋文庫에 들어 있는 한글 번역본을 참고해서 『홍루몽』의 일부를 우리 말로 번역하여 책으로 간행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홍루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현하여 건설한 大觀園을 특별히 참관하고 七言絶句 3수를 지었다. 대관원은 북경 시내 중심에서 남쪽으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도, 연민은 특별히 여행 대상에 넣었다.

그러나 대관원은 1980년대에 『홍루몽』 내용을 바탕으로 재현한 것이지, 원래 있던 건물을 복원한 것은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복잡한 『홍루몽』 내용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

움은 된다. 학자들의 고증을 받아 재현했지만, 『홍루몽』 내용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연민은 이 대관원을 방문하면서 『紅樓夢』完譯의 의지를 다시 굳건히 하였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을 번역했나니,	古日吾邦譯此書
맑은 樂善齋 속에 진중하게 소장되어 있었지.	珍藏樂善清齋裏
어느 듯 고어가 되어 읽기 어려워졌으니,	倏成古語讀之難
지금 말로 번역하는 일 내 어이 그만두리오?	譯以今言吾何已 ³²⁾

방대한 『홍루몽』을 조선시대 궁중에서 한글로 번역하여 樂善齋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글이지만 이미 古語가 되어 해독하기 어려웠으므로, 현대어로 옮기는 일이 꼭 필요했다. 연민은 그 작업을 자신이 꼭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연민은 만년에 『朝鮮文學史』 등의 巨作의 집필과 건강문제 등으로 『홍루몽』 번역은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했다.

연민은, 명나라 후기의 사상가 卓桴 李贄에 관심이 많았고, 이지를 우리나라의 蛟山 許筠과 비교 연구하여, 허균을 ‘朝鮮의 李卓桴’라고 일컬었다. 국적은 비록 다르나 시대가 별로 멀지 않고, 思想과 行蹟이 비슷했고, 마지막에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것도 같기 때문이다.³³⁾

이때의 중국 방문에서 연민은 꼭 李贄의 묘소를 참관하고 싶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 했다. 이지의 묘소는 북경 시내 중심에서 동쪽으로 1백리 떨어진 通州에 있다. 연민이 갔을 때인 1987년에는 이미 두 번이나 옮겨 만든 묘소라 그렇게 古蹟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³⁴⁾ 우리

32) 李家源, 『大觀園三絶』,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90면.

33) 李家源著, 許敬震譯, 『儒教叛徒許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91면.

34) 『李卓桴墓』, 中文維基百科事典.

나라 학자 가운데서 李贄의 사상이나 문학에 관심을 갖고 상세히 소개한 것도 연민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³⁵⁾

5.7. 中國文物에 대한 관심과 애호

淵民은 中國의 文化와 學問에 아주 관심이 많았고, 평생을 연구하고 교육하였다.

朝鮮時代 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오랑캐로 생각했던 滿洲族이 세운 淸나라에 대해서, 實學을 연구한 연민은, 일반 유학자들과는 달리 아주 긍정적으로 인정하여 그 文物이 번창하고 開明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서 연민은 中國을 事大的으로 좋아한 것은 아니고, 그의 학문의 핵심은 韓國學이었다. 해방 직후 연민이 맨 먼저 학 學問의 활동은 同學들을 규합하여 史書衍譯會를 조직하여 한국학의 토대가 되는 『三國遺事』의 譯註作業이었다. 한국학의 깊이 있는 연구를 하려면 먼저 중국의 經史子集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연민이 중국을 좋아하고 중국에 관심을 갖고 중국 서적을 읽고 중국 답사를 갈망한 것이다.

淸나라 文物이 옛날 번창하고 문명스러웠나니,	淸家文物昔昌明
漢族 학자들을 독점하여 불평을 묻어버리게 했네.	推得華儒埋不平
천하의 이름난 책들을 크게 모았나니,	天下名書成大匯
북쪽으로 다투어 와서 배우느라고 燕京으로 몰려들었네.	
	爭來北學湊燕京 ³⁶⁾

淸나라 乾隆皇帝의 四庫全書 편찬을 천하의 이름난 책을 다 모아 集大

35) 李家源著, 許敬震譯, 앞의 책, 91-104면.

36) 李家源, 「中華大陸雜感十絕」,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1면.

성한 것으로 연민은 생각하였다. 연민은 20대인 明倫專門學校 시절 四庫全書を 처음 접하고 그 방대함에 놀라며 중요한 서적을 초록한 적이 있어 사고전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청나라가 동양의 문화와 학문의 중심이었으므로 사방에서 학자들이 청나라 수도 北京으로 와서 배워간 사실을 밝혔다. 대규모 편찬사업을 펼쳐 漢族 學者들을 그 편찬사업에 매몰시켜 자신도 모르게 滿洲族의 淸王朝에 대한 저항할 모의를 할 기회를 없애버린 청 왕조의 통치기술을 연민은 간파하였다.

淵民은 학자이면서 書畫 古董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 서화에 대한 鑑識能力이 탁월하고, 본인이 평생 서화 골동에 관심을 두고서 많이 수집하였다. 1897년 중국 여행에서도 상당한 서화 골동을 鑑賞하고 구입하였다. 특히 書法家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 중국 原碑에서 바로 찍어낸 原拓을 많이 구입하였다.

曲阜에 있는 寶魯齋라는 文物商店에서 문물을 감상하고 이런 시를 지었다.

옛날 拓片 새 조각이 하나 하나 정교한데,	舊拓新瑯片片精
당나라 비석과 尼丘山 벼루가 가장 마음을 끄네.	唐碑尼硯最關情
돈 만량을 그대여 아끼지 마소서.	青蚨萬葉君無惜
돌아가는 행장 가득 채워 마음껏 다니리라.	飽了歸裝自在行 ³⁷⁾

曲阜의 寶魯齋에는 옛날 碑石의 拓本과 印刻 등이 많이 있는데, 연민의 눈에는 唐나라 비석의 拓片과 尼山硯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니산연은 孔子의 고향에 있는 산인 尼丘山에서 나는 벼루로 꼭부에서만 난다. 연민은 돈을 아끼지 않고, 이때 많은 拓片과 벼루를 샀다.

37) 李家源, 『寶魯齋』,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4면.

曲阜 孔府의 북쪽에 曲阜碑林이 있는데, 중국의 三大碑林 가운데 하나로 유명하고, 특히 연대가 오래된 漢魏時代의 비석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 유명한 「禮器碑」, 「乙瑛碑」, 「史晨碑」 등은 아주 희소한 前漢時代의 비석이다. 그래서 곡부의 문물상점에는 좋은 拓片이 많이 있다. 이때의 여행은, 감식안을 갖춘 연민에게 중국 古碑의 질 좋은 탁편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中國 漢代에 제작된 司南의 모조품이 曲阜에 전시되어 있는데, 사남은 羅針板의 원조다. 이미 戰國時代 발명되었는데, 지금 趙나라의 것이 남아 있다.

자석 손가락이 구리 쟁반 위에서 흔들거리다가, 磁勺搖搖銅地盤
고정된 때 남쪽 끝 가리키는 것 보아야 하리. 定時要看指南端
낙양에서 남긴 제도를 漢나라 사람들이 만들었나니, 樂浪遺制漢人造
세계사대발명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四大發明永不刊³⁸⁾

그런데 연민은, 이 司南이 樂浪 때 남긴 제도에 따라 漢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것으로 보았다. 낙양의 고분 벽화에서 銅地盤 모양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司南을 복원한 것이다. 연민의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읽을 수 있는 시다.

西安에서는 大雁塔에 들러 玄奘이 印度에서 가져온 佛經을 번역하여 대안탑에 보관한 사실과 대안탑에 새겨진 褚遂良의 「雁塔聖教序」에 대한 찬미와 雁塔題名한 故事 등을 두고 3수의 七言絶句를 지었다. 그 가운데 제2수는 이러하다.

38) 李家源, 「漢代司南模型」,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4면.

심오한 불경을 층층의 누각에 보관했고,	玄微經籍藏層閣
빼어나고 고운 褚遂良이 쓴 두 비석 돋보이네.	秀麗褚家闡二碑
획과 면과 線의 기풍과 힘 굳센데,	畫面線條風力勁
당나라 사람들 공예에 신비로운 자태 나타나네.	唐人工藝現神姿

褚遂良이 쓴 「雁塔聖教序」는 획과 선에 氣風과 力量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神韻이 도는 자태라고 극찬을 하였다. 王羲之의 글씨를 集字한 行書 「雁塔聖教序」를 長安 興福寺에 세웠는데, 현재는 西安碑林에 옮겨두었으나, 연민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集字하여 再刻한 비문의 글씨는 직접 쓴 褚遂良의 「雁塔聖教序」보다 書藝藝術的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西安碑林을 참관하고 唐나라 서예예술에 대해서 칭송하였다.

草書 楷書 篆書 隸書가 모두 구슬 같은데,	草真篆隸總琳琅
당나라의 유명 서예가들 뿔뿔이 널어 섰구나.	森列名家耀李唐
장막 속에 감추어진 石經에서는 괴이한 기운 생겨나는데,	幢弄石經生怪氣
昭陵의 여섯 마리 준마가 용처럼 솟구쳐 오르네.	昭陵六駿復龍驤 ³⁹⁾

西安碑林은 중국최대의 碑林으로 碑石, 墓誌 등이 약 4천 점 수집되어 있고, 書體도 篆書 隸書 草書 楷書 등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도 唐나라 書家들이 쓴 비석이 가장 많다.

당나라는 太宗이 서예를 좋아하고 書法家들을 우대했으므로 역사상 뛰어난 서예가들이 가장 많이 나온 시대다. 歐陽詢, 虞世南, 褚遂良, 薛稷 등을 初唐四大家라고 일컫고, 그 뒤를 이어 顏真卿, 張旭, 懷素, 柳公權

39) 李家源, 「西安碑林」,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4면.

등 뛰어난 서법가들이 계속 많이 나왔다. 또 당나라 文宗 때 開成年間에 十二經을 楷書로 새긴 것을 『開成石經』이라고 하는데, 西安碑林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연민이 이 石經의 서법을 평하여 ‘怪氣가 생긴다’라고 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석경의 글씨는 方正한 楷書로 端嚴하고 平靜한 느낌을 준다.

西安에서 다시 北京으로 돌아와 紫禁城을 관람하고서 雜言體의 長篇古詩를 1수 지었다.

外朝와 內廷 두 부분으로 나누었고, 外朝는 세 殿閣이 나란히 우뚝하도다. 정말 최대의 장관으로서, 황제가 典禮를 거행하는 것은 모두 여기였다네. 內廷은 여러 궁전과 화원인데, 모두가 다 아름답고 사치스러웠네. 황제는 정무를 보고, 황후와 황자는 그 속에 살았다네. 하늘을 이고 신을 받들기를 오직 경건하게 하면서, 놀이 도구도 쌓아 두었도다. 午門의 뒤 모난 광장에는, 굽은 金河水가 가로질렀네. 홀으로 料拱을 한 白玉橋는, 비할 데 없이 장엄하고 화려하네. 명나라 청나라 두 시대의 건축예술은, 또한 위대하다고 하겠네.	外朝內廷分兩局 外朝三殿并列峙 實爲最大壯觀 皇帝行典都在是 內廷諸宮與花園 并皆佳侈 帝視政務 皇后皇子居其裏 戴天奉神唯虔 ⁴⁰⁾ 遊玩道具是庠 午門之後方形廣場 彎曲橫貫金河水 單拱白玉橋 壯麗無比 明清二代之建築藝術 亦云偉矣 ⁴¹⁾
--	--

40) 戴天奉神唯虔：‘戴’자 原詩에서는 ‘載’자로 되어 있으나, 필자는 오자로 보고 고쳤다.

41) 李家源, 『紫禁城』,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89-190면.

押韻만 하고, 각句의 장단을 자유롭게 하여 지은 산문에 가까운 古詩인데, 紫禁城의 다양한 포국에 맞추어 시 창작도 長短句를 다양하게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자금성의 전체적인 布局만 개괄하였다. 자금성 전체의 내용을 애초에 한 수의 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最大壯觀’, ‘偉矣’란 평범한 말로 평가하였다.

琉璃廠은 北京城 남쪽에 있는 書畫, 文物, 古董을 판매하는 문물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北京城 南西門인 宣武門의 남쪽에 있다 하여 琉璃廠이 있는 지역을 宣南이라 해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湛軒에 의해 朝鮮에 맨 먼저 상세히 소개되었다. 그 이후 燕巖, 楚亭, 雅亭 등 北學派 실학자들이 북경에서도 제일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하던 곳이었다. 거기서 중국의 지식인들과 많이 만났다.

연민은, 연암의 『熱河日記』를 1960년대에 번역 출판한 적이 있었으므로, 琉璃廠을 잘 알고 있었고, 몹시 가고 싶어해 왔다. 드디어 1987년 가을 유리창을 방문하는 소원을 이루었다. 七言絕句 4수를 지었다.

골동과 서화가 무진장인, 천하에 이름난 유리창이라네.	古董書畫無盡藏 名聞天下琉璃廠
네 볼거리 풍부히 제공해주어 기이하다 소리치며, 천 량 어치 다 사 모은들 누가 탕진한다 말하겠나?	侈余眼福叫奇哉 括盡千金疇謂蕩
각종 교통수단으로 만국에서 燕京으로 모여드니, 이 기이한 광경 구경 않으면 博雅君子가 아니지.	梯航萬國湊燕京 捨此奇觀非博雅
눈 녹은 진뿔 위의 기러기 발자국 흔적 없듯이, 신명 나게 왔다간 사람 사람 몇 명이던가?	鴻爪無痕悲雪泥 翩翩幾輩來過者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 중국 좋아하는 고질병자 많아, 吾邦學者饒唐癖
중국 벼루 중국 붓 매우 좋아하고 아꼈지. 唐研唐豪慕愛惜
우습다! 열 번 翻刻한 파리머리 같은 蘭亭序 글씨, 笑殺蘭亭十襲蠅

六橋 李祖默이 翁星原에게 애써 구했다네.	六橋勤向星原索
차마 갑자기 떠나지 못하여 걸음 걸음 더딘데,	遽不耐離步步遲
嚴誠 陸飛를 만나기 어려워 내 마음 슬프도다.	難逢嚴陸我心悲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장차 어찌할지?	後余來者將何若
산들산들 가을 바람이 나그네 생각을 어지럽히네.	嫋嫋金風撩客思 ⁴²⁾

琉璃廠은, 서화와 골동을 文物商店들이 밀집한 곳으로 세계적으로 이름나 있어, 미국 유럽 등 서양 학자들도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연민이 좋아하는 서적과 古董 文物들이 각 상점마다 산적해 있다. 중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文房四寶들도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다. 책에서만 보던 中國의 古籍도 많이 나와 있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연민은, 유리창의 이런 기이한 광경을 보지 못 한 사람은 博雅君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우리나라 선배 학자 가운데서 유리창을 다녀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湛軒 洪大容이 1760년 맨 먼저 유리창을 조선에 상세히 소개했다. 그 뒤 燕巖, 楚亭, 雅亭, 沕齋 등이 다녀가, 우리나라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秋史 金正喜는 琉璃廠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녀갔다는 기록은 없다. 그 밖에 실학자는 아니라도 서적을 좋아하던 陶谷 李宜顯, 六橋 李祖默, 秋琴 姜瑋 등이 다녀갔다. 그 외 恩誦堂 李尙迪 등 역관들은 스승 秋史의 책 구입 심부름을 위해 자주 출입하였다.

유리창을 방문하였지만, 옛날 湛軒이 嚴誠, 潘庭筠, 陸飛 같은 학자를 만난 것처럼 자신이 유리창에서 중국 학자들을 만나지 못한 것을 연민은 아쉬워하였다. 그러나 연민 시대에는 학자들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지, 유리창에 머물지는 않았기 때문에, 담헌이 중국 청년학자 몇 명을 만난 것을 부러워하거나 아쉬워할 것은 없다.

42) 李家源 「琉璃廠四絕」, 『遊燕堂集』,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190면.

이때 연민이 중국 여행에서 구입한 서적과 문물들은, 그 뒤 檀國大學校에 기증되어, 淵民紀念館에 보관되어 있다.

6. 韓國漢文學史上的 의의

이득한 고대는 고찰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三國時代부터 中國과 교류를 계속해 왔다. 역사서는 물론이고, 新羅 말기 孤雲 崔致遠부터는 중국과의 교류 관계가 개인 문집이나 기록에 남아 있다.

高麗 말기부터는 中國 使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만 해도 1천 종에 가깝다. 개인 문집에 실린 것까지 다 포괄하면 중국여행과 관계된 기록의 분량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러나 益齋 李齊賢 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使行記錄의 유람 지역은 遼東을 경유해서 北京까지 오간 것에 대한 기록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다니는 노선이 똑같고 보는 사물이 똑같아 詩文 작품에 다양한 내용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長安, 洛陽 등에 관한 여행 관계 詩文도 거의 없다. 오직 孤雲 崔致遠이 長安에서 지은 시는 2수 있다.⁴³⁾ 그 이후 高麗, 朝鮮을 통틀어 長安이나 洛陽 같은 北京 이외의 지역에 가본 경우도 거의 없으니, 장안을 두고 대량의 시를 지은 것은 淵민이 유사 이래 처음이었다.

朝鮮 成宗 때 錦南 崔溥가 濟州道에서 돌아오다 표류하여 浙江省 寧波에 닿아 육로로 운하를 따라 北京까지 경과한 적이 있었으나, 시는 한 수도 남아 있지 않다.⁴⁴⁾

43) 崔致遠의 『桂苑筆耕集』에는 1수도 안 보이고, 『孤雲先生續集』에 1수, 輯佚에 1수 실려 있다.

丁卯胡亂 직후인 1627년 淸陰 金尙憲이 淸나라에 사신 가면서 遼東에 길이 막혀 山東半島를 경유하여 北京까지 왕래하면서 그때까지와는 다른 노선으로 북경을 왕래하면서 많은 시를 남긴 적이 있었다.⁴⁵⁾

金尙憲, 崔鳴吉, 李敬輿 등이 瀋陽에 장기간 억류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고받은 시가 있는데, 이는 여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타국에서 겪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어진 문학작품이었다.

1910년 朝鮮王朝가 망한 이후 우리나라 지식인들 가운데 중국에 망명하여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거주지역은 거개가 滿洲, 北京, 上海 등지에 제한되어 있었다. 또 독립운동 등에 종사하느라고 문학에 관심을 기울일 형편이 못 됐거나, 애초에 한문학적 소양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朝鮮 말기 中國에 망명한 대표적인 문인 학자로 滄江 金澤榮을 먼저 들 수 있다. 창강은 시문에 아주 능했고 중국의 근대 산업가 張騫과 잘 알아 1905년 그의 주선으로 중국에 망명했으나 南通에 머물러 살았다. 중국 망명 이후 여행을 거의 하지 않아 남통 이외에는 가 본 적이 거의 없었고, 중국 산천이나 문물을 두고 읊은 시도 거의 없었다.

大溪 李承熙는, 1908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했다가 1914년 중국으로 옮겨가 살았다. 상당한 시를 남겼으나, 滿洲, 北京, 曲阜에 국한되었다. 그는 曲阜를 두고 지은 시는 양이 상당히 많다.

臨時政府 總統을 지낸 石洲 李相龍은 중국에 오래 거주했으나, 시를 읊은 지역이 滿洲 北京에 거쳤고, 남긴 시도 많지 않다.

心山 金昌淑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머문 기간이 상당히 길고 다닌 지역도 광범위한데도, 중국에서 지은 시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아마 원고가

44) 崔溥, 『錦南集』 권3·4·5, 『漂海錄』, 韓國文集叢刊本.

45) 金尙憲, 『淸陰集』 권9, 『朝天錄』, 韓國文集叢刊本.

보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山康 卞榮晚, 舊園 鄭寅普 같은 학자도 중국에 오래 머물렀으나, 중국을 두고 지은 시는 거의 없다.

연민이 1897년 중국을 여행하여 『中華大陸紀行一百首』를 남긴 것은, 그의 학문 일생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었다. 25일 동안 北京, 曲阜, 濟南, 泰安, 西安 등지를 유람하며 各體에 걸쳐 1백 수의 漢詩를 지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타고난 詩才에다 幼少年 시절에 철저한 詩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잠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남보다 자세히 관찰하고 자료를 모으고 끊임없이 시상을 彫琢한 결과이다. 심지어 이동하는 버스나 비행기 속에서도 계속 시를 구상하고 써서 남겼다.

泰山에 오르고, 萬里長城에 올라 시를 지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일 것이다. 특히 長安을 유람하여 시를 지은 것은 우리나라 文學史上 처음 있는 일이다. 시의 양에 있어서도 초인적인 숫자다. 25일 동안 평균 하루에 4수씩 지은 셈이다.

그래서 연민은 이를 기념하여 귀국 후 자신의 서재 이름을 遊燕堂이라고 지었다. 燕京에서 旅遊한 것을 기념한 것이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주 진귀한 경험이었으므로 기념할 만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5년 동안 지은 漢詩文 원고를 편집하여 1990년에 출판한 그의 다섯 번째 漢詩文集의 이름을 『遊燕堂集』이라고 명명하였다.

1987년 淵民이 중국을 여행하여 1백 수의 시를 남긴 이후, 그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漢文學者들이 中國을 유람하며 시를 짓는 유행이 형성되었다.

1989년 10월에 碧史 李佑成 교수가 중국을 방문하여 북경, 曲阜, 西安, 嫩煌 등지를 유람하고 한시를 남겼다.⁴⁶⁾ 그 뒤 碧史는 중국에 여러 차례 유람하며 2백 수에 가까운 漢詩를 남겼다. 그러나 碧史는 주로 絕句詩 위

주로 지었다.

龍田 金喆熙도 그 뒤 중국을 여행하여 많은 시를 남겼다.⁴⁷⁾ 그 이후로 한시창작이 가능한 전국 각 지역의 여러 한문학자들이 중국 여행을 하고 한시를 지었다. 현대에 와서 한시창작이 다시 자못 부흥한 듯하나, 한시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어 발표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오늘날에 와서는 漢文學이 극도로 쇠퇴해진 듯해도, 오늘날에는 高麗나 朝鮮時代 문인 학자들이 가보지 못한 광범위한 중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漢詩에 뛰어난 솜씨를 가진 漢文學 大家들이 한시를 지어 남김으로 해서, 漢文學史上 中國紀行文學 작품을 다시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思潮를 만들어내는 데는 淵民이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7. 결론

淵民은 20세기를 대표하는 韓國 최고의 漢文學者였고, 『朝鮮文學史』 등 1백여 종에 달하는 等身の 著書を 남겼다.

傳統 漢詩文 創作者로서 漢詩 2500수, 漢文 散文 2500편을 남겼다. 80세 이후의 4년 동안에 창작한 漢詩文은 아직 정리되어 출간되지 못했으므로, 이 작품들이 정리되어 출판되면, 漢詩文 작품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뛰어난 漢詩나 漢文 散文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中華大陸紀行一百首」는, 淵民의 특색 있는 우수작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學者 文人으로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하여 유람의 자취를 한시 1백 수로 남겼다.

46) 李佑成, 『碧史館文存』, 창작과비평사, 2005.

47) 金喆熙, 『天海亭續稿』, 천해정문고 간행위원회.

그 작품의 양에 있어서나 유람한 지역의 광범위함에 있어서도 오늘날은 물론이고, 고려 조선을 통틀어서도 가장 상위급에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문물을 보는 시각이나 대상이, 전통적 儒學者의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폭넓은 사고를 하였다. 창작방법에 있어서도, 자유로우면서 독창적인 생각에서 우리나라 淵民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담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연민이 北京을 떠나기 전날 밤에 읊은 시에서, 이번 여행에서 이루지 못한 두 가지 숙원으로 「廣開土大王碑」를 맑게 소리내어 한 번 읽지 못한 것과 白頭山 정상에 오르지 못한 것을 꼽았다.⁴⁸⁾ 우리 역사상 가장 민족의 역량을 떨친 광개토대왕의 비석을 소리 내어 읽고, 민족의 靈山인 백두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소원임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燉煌과 杭州 西湖를 유람 못 한 것을 아쉬움으로 남겼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中國遊記』를 쓰고 싶다는 희망을 보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다.⁴⁹⁾

漢文學이 거의 멸절된 20세기에 이런 우수한 連作漢詩 1백 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漢文學史의 유산을 크게 풍부하게 만들고 수준 높게 만든 偉業이었다. 中國을 포함한 전 세계를 향해서 大韓民國 漢文學 수준을 자신감을 갖고 보여 주었다.

48) 李家源, 「離燕之其前夕聯吟四絶」, 『遊燕堂集』 p.190. 檀國大學校 出版部, 1990.

49) 같은 글.

참고문헌

- 金尙憲, 『淸陰集』, 韓國文集叢刊本.
金喆熙, 『天海亭續稿』, 천해정문고 간행위원회.
李家源, 『李家源全集』, 정음사, 1987.
_____, 『遊燕堂集』,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0.
_____, 『萬花齊笑集』,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7.
李德懋,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本.
李佑成, 『碧史館文存』, 장작과비평사, 2005.
崔溥, 『錦南集』, 韓國文集叢刊本.
崔致遠, 『桂苑筆耕集』, 韓國文集叢刊本.
- 李家原著, 許敬震譯, 『儒教叛徒許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91면.
許敬震, 『연민선생과 나』, 보고사, 2017, 145-146면.
許捲洙, 『淵民李家源評傳』, 도서출판 숲이, 2016, 53면.

논문투고일 : 2021.1.15. 심사완료일 : 2021.2.9. 게재확정일 : 2021.2.10.

Abstract

A Study on Yeonmin Lee Gawon's "One Hundred Poems
to the Chinese Continent"

Heo, Kwon-su*

Yeonmin Lee Gawon is a renowned Korean Classics in Chinese scholar in Korea. His writings have already exceeded 100 books. He is very outstanding at Chinese poetry and sentences, and have been already recognized by Chinese scholars.

In the fall of 1987, for the first time as a Korean, he was officially invited to China to present his thesis at an academic conference, visit Beijing, Qufu, Jinan, and Xi'an, and then return to Korea via Hong Kong.

At this time, he created a hundred poems when traveling to China called "One hundred poems to the Chinese continent". In this poem, he contains his views of modern China, his impressions of the mountains and rivers of China, his impressions of Ancient Chinese writers, and the imaginations of his senior Korean scholars on their trip to China.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He is the first scholar to write a poem on the mainland of China. And He is the first scholar in history to write a poem over Xi'an. This is a matter of special note as i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s in Chinese.

key words Yeonmin Lee Gawon, China Continent, Confucianism,
Practical study, History of Korean Chinese Literature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 of Classical Chinese. Emeritus Professor.
su7492@hanmail.net